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2부 40

### 대구소 향리, 개경에 가다

대구소 향리와 행수도공 최씨는 개경으로 올라가 장작감 판사의 안내로 궁궐 편전에서 의종을 알현했다. 의종은 편전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백금 20냥을 하사했다. 청자기와를 구워 올려 보낸 것에 대한 포상이었다. 두 사람은 천정이 높다란 편전의 분위기에 놀려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의종이 포상까지 하자 곧 기절할 것처럼 숨이 막혔다.

그러나 두 사람을 격려하는 의종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차츰 정신을 차렸다. 의종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편전의 천정에 공명하여 크게 들렸다.

“판사, 이 자들도 양이정이나 태평정을 보았소?”

“아니옵니다. 폐하를 알현한 뒤 보게 될 것이옵니다.”

“그대들은 먼 곳에서 왔으니 객관에서 여유롭게 쉬었다 가라.”

“예, 폐하.”

장작감 판사가 다시 아뢰었다.

“태후마마께서도 이들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대들을 가장 반기실 분이니 꼭 뵈도록 하라.”

“예, 폐하.”

대구소 향리와 행수도공 최씨는 온몸이 떨려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 편전 안에는 의종을 알현할 신하들이 길게 도열해 있었다. 장작감 판사는 눈치껏 행동했다. 의종이 잠시 침묵을 하자, 그 뜻을 알아차리고 대구소 향리와 행수도공 최씨를 데리고 편전을 나왔다. 편전 마당을 켄걸음으로 지나치면서 말했다.

“이보다 더한 영광은 없을 것이요. 폐하께서 친히 편전으로 불러 상을 주신 적은 근래에는 없었소.”

“판사 나리 덕분이그만요.”

“나는 그대들이 청가기와를 만들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장작에게 들었소. 그래서 폐하께 주청을 드린 것이요.”

그때 남평현 출신 형부상서 문공유(文公裕)가 그들을 보고 다가왔다.

“탐진에서 온 사람들이오?”

“예, 상서 나리.”

“며칠 전에 폐하께서 나에게 물었소. 탐진 사람들에게 상을 쥐야겠는데 무엇이 좋겠느냐고 말씀하셨소. 그래서 백금을 하사하시라고 했소.”

“재상께서는 고향이 남평이라고요. 인사하십시오.”

장작감 판사가 형부상서 문공유를 소개했다. 대구소 향리와 행수도공 최씨는 재상 문공유가 남평 출신이라는 말에 존경스러워 고개를 더 숙였다. 탐진에서 남평까지는 하루면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 두 사람은 남평현의 인물이 재상에 올랐다고 하니 은근히 가슴이 뿌듯해졌다.

“나리, 소인은 탐진 대구소 향리이고라우, 이쪽은 탐진 사당마실 가마  
행수도공이그만요.”

“행수도공이라면 우두머리 도공이라는 말인데, 무엇을 잘 만드시오?”

“탐진에는 소인보다 더 잘 맨드는 도공덜이 많그만요. 소인은 많이  
모자란 도공이그만요.”

“허허허. 재주 많은 도공이 겹손까지 갖추었으니 그대는 행수도공이라고  
불릴 만하오.”

문공유는 대구소 향리의 탐진 사투리를 듣는 순간 고향 사람을 만난  
듯 반가웠다. 두 사람을 자신의 사택으로 불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장작감 판사에게 말했다.

“숙소가 마땅찮다면 내 사택에서 머물게 하시오.”

“폐하께서 객관에 머물도록 허락하셨사옵니다.”

“원래 객관은 사신들이 묵는 곳이니 번잡하오. 곧 금나라에서 사신들이  
들어올 것이오. 폐하께 말씀드리겠으니 내 사택으로 보내시오.”

“상서 나리, 알겠습니다.”

대구소 향리와 행수도공 최씨는 태후별궁에서 점심을 했다. 점심 후에는  
공예태후가 그들을 특별히 별궁 다실로 불러들여 차를 주었다. 별궁 다실은  
대구소 향리의 집무실보다 작고 소박했다. 찻자리에 놓인 다구들은 모두  
청자였다. 대구소 향리는 청자 다기들을 보는 순간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 공예태후가 말했다.

“그대들 덕분에 나는 고향에 못 가도 시름을 달랠 수 있다오.”

두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 대답을 못했다. 그러자 장작감 판사가 말했다.

“태후마마께서는 그대들이 만든 청자기와 정자인 양이정을 말씀하시고 계시네. 마마께서는 가끔 양이정으로 행차하시어 바람을 쐬고 오신다네.”

“판사 말씀이 맞아요. 양이정에 오르면 마치 고향집에 가 있는 듯해요.”

“태후마마께서 고로코름 격려해주신게 심이 나는그만요. 앞으로 더 좋은 청자를 만들겠습니다요.”

“내 별궁에서 며칠 쉬었다가 가시오.”

“태후마마, 형부상서께서 이들을 위해 방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형부상서 댁으로 갈 것이옵니다.”

“아, 그래요.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데서 있다가 가시오.”

“그렇다면 선물을 준비해두었으니 가져가시오.”

공예태후가 궁녀를 시켜 개경 인삼을 찌서 말린 숙삼 네 꾸러미를 가져 오게 했다. 개경 숙삼은 송나라 사신들이 사재기를 할 만큼 욕심내는 고려의 특산품이었다. 실제로 송나라에서는 인삼, 담비 털가죽인 초피(貂皮), 부드러운 사슴뿔을 말린 녹용(鹿茸)을 동북삼보(東北三寶)로 쳤다. 그중에서도 인삼을 제일보(第一寶)라고 했다. 물론 비색청자는 황실이나 대신들의 저택이 아니면 구경할 수 없었으므로 일반 양민들은 그 가치를 아직 알지 못했다.

아무튼 송나라 사신들이 고려 숙삼을 사재기할 정도로 욕심낸 까닭은 송나라 귀족들이 “고려 숙삼 한 뿌리는 보석 한 꾸러미와 같다.”며 갖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송나라삼은 도라지보다 못하다 하여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고려 숙삼의 약제성분을 알고 있었으므로 송나라삼을

비품으로 취급했던 것이다.

개경 숙삼을 두 사람에게 각각 두 꾸러미씩이나 선물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공예태후는 가까운 피붙이를 만난 듯 두 사람을 환대했다.

“태후마마,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지 난망하옵니다.”

“그대들은 청자기와를 만들었으니 그것으로 나는 족하오. 그러니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마시오.”

“시방 사용하시는 청자 찻잔이 태후마마 맘에 드시옵니까?”

“고향 친구 같은 정든 찻잔이라오.”

“태후마마께서 사용하시는 찻잔은 인동초 넝쿨무늬와 국화무늬를 음각한 것인데 시방 탐진 도공들은 상감을 한 청자사발을 만들고 있그만요.”



공예태후가 가지고 있는 찻잔의 문양들은 음각한 형태지만 지금 탐진에서는 상감을 하는 데까지 도자기법이 발전해 있다는 말이었다. 물론 상감기법은 사발 크기와 엷비슷한 발효 찻잔이나 벽에 붙이는 직사각형의 전(塼) 등에만 구사하고 있는 초기단계였다. 대형 향아리나

정병, 주전자, 향로 등 원형기물들은 아직도 상감기법을 시도 중이었다. 갖가지 문양 등이 등근 표면에 완벽하게 대칭해야 하는 만큼 작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한 손에 잡히는 사발이나 납작한 형태의 전은 그만큼 문양을 파내기가 수월했던 것이다. 전 같은 경우는 작업하기가 용이하게 길이는 어른 손 두 뼘, 두께는 어른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두꺼웠다. 대구소 향리가 말했다.

“태후마마께 다기 전부를 상감한 청자로 조운선 편에 반다시 보내 줍니다요.”

“그러지 말아요. 이 다기들은 내 손때가 묻어 정이 들었어요. 월남사를 다녀온 가관선사께서 상감한 다기들을 가져오겠다고 해서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대들 마음은 알겠으나 태후마마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시오.”

장작감 판사가 점잖게 말하고는 태후별궁 밖을 내다보더니 일어섰다. 장작과 산사 두 구실아치가 보였다. 대구소 향리와 행수도공 최씨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듯했다. 장작감 판사가 공예태후에게 말했다.

“태후마마, 저는 내전에서 재상회의가 있으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러시오.”

“나는 폐하의 지시로 여기까지 왔소. 이후에는 장작과 산사가 양이정으로 안내할 것이니 그리 아시오. 그럼 나는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별궁 다실 밖까지 따라 나가서 장작감 판사에게 인사했다.

“판사 나리, 참말로 고맙그만이라우. 한미한 소인덜을 챙겨주시니 말로는 뵈이라고 표현할 수 읍그만요.”

장작감 판사는 말을 타고 총총히 떠났다. 장작과 산사 두 구실아치는 대구소 향리와 행수도공 최씨를 보더니 반가워 어쩔 줄 몰라 했다. 개경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다. 두 구실아치는 일단 별궁 다실로 들어와 공예태후에게 큰절을 했다. 공예태후는 양이정 회향행사 때 보았던 그들을 기억했다. 그들에게는 따로 선물을 내리지 않는았다. 양이정 회향 후 의종이 포상을 했기 때문이었다.

“탐진 손님들을 잘 접대하시오.”

“저희가 탐진에 갔을 때 이 분들의 도움이 참으로 컸습네다. 그러니까니 이자(인자) 저희들이 갚을 차례입네다.”

두 구실아치 중에 장작은 궁녀가 따른 탐진 발효차를 조금 마시더니 찻잔을 놓았다. 장작 구실아치가 말했다.

“탐진에서 마시던 차향과 맛입네다. 잊을 수가 없습네다. 차는 탐진 차가 으뜸입네다.”

“그곳에서 살다 오더니 차인이 다 됐구려.”

“아닙네다. 그래도 저는 여재껏 차보다는 술을 더 좋아합네다.”

“그대들 공을 내가 어찌 잊겠소. 그대들이 술을 더 좋아한다고 하니 알겠소.”

공예태후가 궁녀에게 눈짓을 하자 백자술병에 담긴 송나라 고량주 두 병을 가져왔다. 두 구실아치에게 주는 공예태후의 하사품이었다. 두 구실아치는 다실에서 오래 있지는 못했다. 공예태후가 후원으로 나가 산책할 시간이 되자 우두머리 궁녀가 눈총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두 구실아치는 몹시 황공해 하면서 태후별궁을 나왔다. 두 구실아치는 대구소 향리와 행수도공 최씨에게 양이정을 보여주기 위해 앞장서서 걸었다.

“양이정은 내성과 외성 사이 산자락 밑에 있습니다.”

“여그서 멀리 있그만이라.”

“말을 타기에는 까참고 걸어가기에는 쪼끔 멀네다.”

“대구소에서 용운마실 가는 거리쯤인게라우?”

“그렇습네다.”

두 구실아치는 탐진 대구소 당전에서 몇 달을 살았기 때문에 용운 마을이나 사당마을, 쌍계사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았다. 장작 구실아치가 손에 든 백자술병을 호기 있게 쳐들면서 대구소 향리에게 말했다.

“향리 나리, 이 술을 얼뚱 마시지 않갓습네까?”

“백자술병에 든 술은 무신 맛인지 얼릉 마시고 짚그만요.”

“술병에 따라 술맛이 달라집네까?”

“청자술병에 든 술은 시 달이 지나도 시큼허지 않지라우.”

“어케 그렇습네까?”

“청자 기운 땀시 그러지라.”



계산이 틀리면 절대로 믿지 않는 산사 구실아치가 의심의 눈초리를 하며 말했다.

“청자 기운이 어데 있습네까?”

“지가 현 말이 아니그만요. 쌍계사 스님덜이 청자정병에 물을 넣어두든 시 달이 가분다고 허드그만요. 변치 않고 말이요. 뿐만 아니라 청자정병 앞에서 독경을 허든 심이 나분다고도 허고라.”

“허허. 스님덜이 허신 말썸이니까니 믿지 않을 수 읍갓시다.”

장작 구실아치가 산사와 달리 솔깃하게 듣고 말했다. 그래도 산사 구실아치가 행수도공에게 말했다.

“기라든 청자기야에서도 기운이 나오갓시다.”

“물론이지라. 다른 디보다 청자기야 아래서 있으믄 심이 생기겄지라.”

두 구실아치 중에서 한 사람은 믿는 눈치를 보였고, 또 한 사람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대구소 향리와 행수도공은 청자의 기운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싶지는 않았다. 개경의 내성과 외성 사이에 탐진에서 구운 청자기와 정자가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었다.

이윽고 두 구실아치와 대구소 향리, 행수도공 최씨는 태평정에 이르렀다. 태평정 역시 청자기와가 없혀 있는 정자였다. 그러나 태평정 좌우로 화초와 과일나무로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이정보다 눈길을 더 끌지 못했다. 대구소 향리가 볼 때도 태평정은 지나치는 대문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집으로 치자면 태평정은 문간채, 양이정은 안채

같았다. 연못가에 있는 양이정으로 연못에서 시나브로 서늘한 바람이 불었고, 양이정은 물결이 찰랑거리는 연못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양이정의 모습은 연못 속의 용왕이 청자 관을 쓰고 있는 듯했다. 그밖에도 관란정과 양화정이 있지만 양이정의 우아한 자태에는 미치지 못했다. 대구소 향리가 감탄했다.

“폐하께서 왜 양이정을 공예태후께 지어드렸는지 이해가 가부요.”

“나도 동감입네다!”

눈앞에 양이정을 두고 네 사람 모두 탄성을 질렀다. 행수도공 최씨가 말했다.

“방금 태후마마께 받은 술을 한 잔 허믄 으짚께라우?”

“내가 허고 짚았던 말이네.”

대구소 향리가 들뜬 목소리로 행수도공 최씨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두 구실아치가 양이정에 먼저 올라 승려들의 가부좌를 흉내 내며 앉았다. 장작 구실아치가 들고 있던 백자술병을 대구소 향리에게 건넸다.

“이 귀한 술을 어케 마시갓습네까만 또 언제 맛보갓습네까! 하하하.”

“술잔은 여기 있습니다.”

장작감에서 술꾼으로 소문난 장작 구실아치가 허리춤 복주머니 속에서 술잔 두 개를 꺼냈다. 놀랍게도 잔은 청자술잔이었다.

“용운마실에 갔을 때 도공 김씨가 선물한 것입네다.”

“천하의 술꾼을 여그서 침 보그만요. 하하하.”

대구소 향리가 장작 구실아치를 쳐다보면서 청자술잔을 가지고 다닐 정도의 술꾼이란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며 크게 웃었다. 장작 구실아치가 술을 한 잔 마시더니 능청을 떨며 말했다.

“청자술잔이라 그란지 취하지 않습네다. 시딱 마셔보라우요.”

“바람이 술술 부니까니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는 않겠시다.”

네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공예태후가 하사한 고량주 두 병을 금세 비워버렸다. 대구소 향리가 말했다.

“두 분 나리께서 허신 말씀대로 지도 뗏 잔을 했지만 말짱허요. 허허허.”

두 구실아치와 탐진에서 온 대구소 향리와 사당마을의 행수도공 최씨는 마치 오래 된 친구처럼 탐진의 토하젓을 들먹이며 회포를 풀었다. 벽란도 너머로 해가 기울 무렵에야 네 사람은 양이정에서 내려왔다. 장작 구실아치가 말했다.

“상서 나리께서 퇴궐하시기 전에는 사택에 가서 지다려야 합네다.”

“암은요, 고것이 예의지라.”

형부상서 문공유 사택 역시 내성과 외성 사이의 대신들이 모여 사는 기와집 마을에 있었다. 장작 구실아치는 그곳의 지리를 훤히 알고 있었다.

그가 또 앞장을 섰다. 그런데 문공유 사택에 도착했을 때였다. 노승 한 사람이 긴 주장자를 들고 문공유 사택을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서고 있었다. 장작 구실아치가 뒤따라 들어가 노승에게 말했다.

“스님, 저희들은 상서 나리의 허락을 받고 왔습네다.”

“그렇다면 저기 사랑방 마루에 앉아서 기다리시오. 내가 온다고 했으니 아우는 곧 올 것이요.”

스님은 문공유의 속가 형이었다. 법명은 가관(可觀)이었고 대선사였다. 가지산문 원응국사 학일(學一)의 제자였는데, 가관이 개경에 들른 것은 개경 안화사에서 자신의 법문이 있기 때문이었다. 두 구실아치는 탐진 손님들이 문공유 사택에 들어가는 것까지 본 뒤 그곳을 떠났다. 잠시 후, 노승의 말대로 일찍 퇴궐한 문공유가 모습을 나타냈다. 문공유는 사랑방 마루에 앉아 있는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앞으로 개경을 떠날 때까지 저 별채 방에서 머무시오.”

“아이고메, 감사합니다요.”



두 사람은 문공유를 따라서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사랑방 윗목에도 다탁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런데 찻잔은 공예태후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조악했다. 청자이기는 하지만 황갈색 청자였고 굽이 없었다. 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승려들이 쓰는 발우인 듯도 했다.

“자, 송나라 보이차를 우리겠소.”

“나리, 청자찻잔은 어디서 구했는게라우?”

행수도공 최씨의 말에 문공유가 말했다.

“방금 보았던 분은 내 형님이오. 형님께서 고향에 가셨다가 탐진 월남사에서 구해 온 것이오. 그곳에서는 스님들이 발우로 쓰고 있다고 하오.”

“스님께서서는 월남사에 자꼬 가시는게라우?”

“월남사 주지였던 묘오스님이 형님의 도반이라고 했소. 그러니 자주 가셨겠지요.”

“그러시다면 지덜이 청자찻잔을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디 월남사에 갔다 놓으믄 으쩔게라우?”

“청자찻잔이란 다 같지 않소?”

“나리, 아니그만요. 시방 맨드는 사발은 청동정병멩키로 상감을 허고 있어라우. 모양도 날렵하고 격조도 있그만요. 궁계 차맛이 더 나겼지라우.”

“허허허.”

문공유는 애매하게 ‘허허허’ 하고 웃었다. 주어도 좋고 주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웃음이었다. 어쨌든 초면인데도 고향 근처의 사람이라고 환대를 하는 문공유가 참으로 고맙지 않을 수 없었다. 대구소 향리는 탐진 도공들이 찻잔 용도로 만든 사발 수십 점 중에서 선별하여 최상품을

월남사에 보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문공유는 가관이 사랑방에 들어오자 긴히 할 말이 있다며 두 사람을 내보냈다. 두 사람은 별채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당마을 행수도공 최씨가 말했다.

“향리 나리, 꿈을 꾸는 거 같그만이라우. 하룻내 정신이 멍해라우.”

“오늘 우리는 폐하를 알현했고, 태후마마를 친견했고, 양이정을 보았고, 쪼간 전에는 형부상서를 뵈지 않았는가. 뭘 일인지 모르겠네. 나도 꿈을 꾸고 있는 거 같단마시.”

두 사람은 방바닥에 앉았는데도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양이정에서 마셨던 송나라 고량주 때문만은 결코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은 일들이 얼른 믿어지지 않아서였다.<계속>